

# 비관세장벽 모니터링(파리지사)

## I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 1. 수출현안 및 동향

#### 독일 에코 테스트, 캔 토마토 제품에서 호르몬 독성 검출

- 에코 테스트(ÖKO-TEST)<sup>1)</sup>는 20개의 가공 토마토 제품을 검사하였고 그중 18개의 제품에서 호르몬 독성이 검출됨. 18개의 제품은 모두 캔에 보관 판매되는 제품이었으며, 유리병에 담긴 2개의 토마토 제품에서만 비스페놀 A(Bisphenol A, BPA)가 검출이 되지 않았음.
- BPA는 호르몬 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유방암, 비만, 아동의 이상행동을 촉진할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물질임. 이 BPA는 캔의 내부 도장 물질로부터 나온 것이며 음식으로 옮겨갈 수 있음.
- 호르몬 독성이 검출된 제품의 모든 공급업체는 비-BPA 캔만을 사용한다고 주장함. 하지만 엄격한 에코 테스트의 결과에 따르면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권장 일일 최대량의 4배에서 많게는 28배까지 검출되었고 이에 전문가집단의 상당한 비판과 부정적인 의견이 게재되고 있음.

#### 유럽식품안전청, 유전 독성에 대한 새로운 지침에 따라 훈제아로마의 승인 불가 판정

- 훈제아로마 제품<sup>2)</sup> 관련 업체는 유럽위원회에 제품 판매 승인을 10년 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함.

1) 에코 테스트(ÖKO-TEST) : 독일에서 발행되는 소비자 전문지로, 환경 및 건강에 관련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 및 평가를 제공함.

2) 훈제아로마 : 전통적인 훈제의 대안으로 고기, 생선, 치즈와 같은 음식에 훈제 향을 첨가함. 또한 수프, 소스, 음료, 과자, 아이스크림, 제과와 같은 음식들의 향미 물질로도 사용됨.

- 이에 유럽식품안전청은 승인 기간 완료 전에 갱신을 위한 재평가를 시행함. 2009에서 2012년 사이 위원회는 식품안전청의 권고에 따라 제한된 사용을 전제로 승인을 허가하였으나 이번 재평가에서는 2021년 EFSA의 수정된 과학적 지침에 따라 승인 불가로 판정됨.
- 새로운 과학적 지침에 따르면 복합 혼합물 중 단일 성분이 세포의 유전 물질을 손상시키는 유전독성으로 확인되면 전체 혼합물을 유전독성으로 간주함. 훈제아로마는 단일 성분의 유전독성 물질에 해당함.
- 유럽위원회와 EU 회원국은 EFSA의 과학적 견해를 고려하여 적절한 위험성 관리를 선택적으로 진행할지 추후 논의 예정.

\* 출처: [https://www.chip.de/news/Hormongift-in-18-von-20-Produkten-Dosentomaten-Test-mit-erschreckenden-Ergebnissen\\_184842129.html](https://www.chip.de/news/Hormongift-in-18-von-20-Produkten-Dosentomaten-Test-mit-erschreckenden-Ergebnissen_184842129.html), <https://www.efsa.europa.eu/en/news/smoke-flavourings-ga-wim-mennes-efsas-working-group-chair-flavourings>

## 2. 시사점

- 인체 내부에 특정 유해인자 또는 화학 물질의 총량을 의미하는 체내 축적 화학물질량(Body Burden)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다수의 유럽 회원국 환경부 장관들이 이미 참여하고 있으며 오래전에 금지된 독성물질이 자녀에게서 검출되거나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물질로 인한 불임 문제 등 독성물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EU는 호르몬 독성에 대한 관련 법을 강화하는 추세임. 또한 유럽 내 소비자 관련 기관에서 기준치 이상의 독성물질 검출에 관한 기사가 꾸준히 보도 되는 등 앞으로 관련 법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됨.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앞으로 관련 법률의 개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수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1. 통관동향 등 이슈

### 유럽연합, 농약 벤티아발리카브의 승인갱신 거부 결정

- 이행 규정(EU) No 540/2011의 부록 A에 규정된 대로 유효성분 (Active Substance) 벤티아발리카브(Benthiavalicarb)의 사용승인은 2024년 11월 15일에 만료됨. 이에 사용승인 갱신을 위한 신청서가 보고회원국인 폴란드와 공동보고회원국인 프랑스에 제출됨. 2017년 10월 31일 폴란드와 프랑스는 협의하여 갱신평가보고서를 유럽식품안전청(EFSA)과 위원회에 제출함.
- 이에 EFSA는 충족 가능성을 검사하였고 이 유효성분 **벤티아발리카브**는 발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는 유럽화학물질청 (European Chemicals Agency)과도 같은 의견임. 또한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분비 교란의 특성을 가진다고 결론지었으며 2021년 8월 23일 위원회에 이 결과를 보고함.

## 2. 변동사항

- 유럽위원회는 EFSA의 의견에 따라 승인갱신 불가로 결정하였으며 이행 규정(EU) No 540/2011의 부록 A에서 **벤티아발리카브에 대한 163번째 행은 삭제됨. 또한 회원국은 늦어도 2024년 6월 13일까지 벤티아발리카브 성분을 포함하는 모든 농약의 허가를 취소해야 함.**

\* 출처: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OJ%3AL\\_202302657](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OJ%3AL_202302657)

### 3. 기타 주의사항 등

- 이 유효성분의 허가 만료일이 2024년 11월 15일이나 이번 갱신 불가 결정에 대한 효력이 2023년 12월 13일부터 발효하므로 관련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식품을 EU로 수출하는 업체는 허가 만료일과 무관하게 즉시 이 사안을 적용하여 수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III

###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 1. 통관거부사례 - 기준월(12월) 보고된 사례 없음

- 건조 해조류, dried seaweed (2023.12.1.)
  - 통관번호 2023.8286
  - 요오드 과다 함량으로 독일 국경 검역소에서 경고 조치
- 건조 해조류, dried seaweed (2023.12.1.)
  - 통관번호 2023.8291
  - 요오드 과다 함량으로 독일 국경 검역소에서 경고 조치
- 건조 해조류, dried seaweed (2023.12.5.)
  - 통관번호 2023.8374
  - 요오드 과다 함량으로 오스트리아 국경 검역소에서 경고 조치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2. 시사점

- 특이사항 없음.